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경자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은 아쉬움으로 가리고 닦아올 일은 명암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는 일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9년은 정말 국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한일 경제 전쟁, 북핵문제 등과 국내적으로는 수출 부진과 출렁이는 부동산시장 등으로 경제성장률·실업률·물가 등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정치 사회적으로는 진영 간, 세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서 한 해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한해의 뒤에 오는 2020년의 세계 경제전망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가운데 국내의 경제성장률을 OECD는 2.0%로 전망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2.4%로 2019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렇게 한해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외면하다시피 해오던 건설시장을 살리려고 투자를 늘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무적이지만 이제는 정부의 시장 환경 조절에 따른 부침 속에서 함께 출렁거리는 연약한 우리의 건설(CM)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지그지글러 교수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매사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긴 안목에서 내일을 설계하기보다는 당장 내년 계획에 집착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항상 변화를 전제로 하는 중장기 계획 속에서 단기 계획이 하나하나 수립되고 집행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시장과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단기 계획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내실 있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협회는 경쟁력 배양은 각자의 몫을 더 크게 봐서 후순위로 하고 항상 시장을 집중적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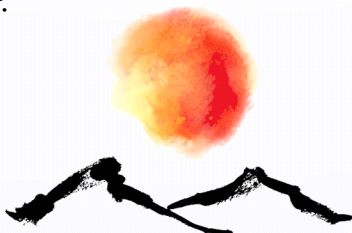
구미 선진국들의 협회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구성원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컬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근래 국내의 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제도와 일상적인 기능, 업(業)과 기능 등 많은 분야가 파편화되어 참여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상호의 불신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는 항상 시장의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업계는 부화뇌동하지 말고 자신의 입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리하고 꾀 많은 쥐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도 지혜를 모아 금년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CM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CM협회 회장 배영휘

The Future is Not to Sit and Wait but Create for oneself

Bae Yung-Hwi

Chairman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Korea

The New Year is here with us.

We have come to the time of the year when we reflect on the past year and welcome the new year with new hopes and aspirations.

Looking back at 2019, I think it was a tough year both in Korea and abroad. Internationally, economic indicators such as economic growth, unemployment, and inflation were not good due to the U.S.-China trade conflict, the Korea-Japan economic war,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t home, politically and socially, it was a tough year with the sluggish real estate market and we seem to have spent the year experiencing the faltering economy of the nation as the rift between the political camps and generations deepened.

While experts say that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0 will be the most difficult year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OECD predicted the domestic economic growth rate to be 2.0 percent, whereas the Korean government forecasts 2.4 percent which will be better than 2019.

At this juncture in the year, the government seems to be working on various policies to increase investment in order to revive the construction market which the government has so far turned a blind eye. It is encouraging, but we must now show ourselves that we are not a fragile construction industry (CM) that is at the mercy of the ups and downs of the market conditions as dictated by the government.

Professor Zig Zigler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aid that we can't achieve anything if we don't try and that we must face challenges with courage at all times.

We seem to be more obsessed with making plans for next year than with planning the future for the long run.

It would be advisable to establish and implement short-term plans one by one within the whole scope of mid- and long-term plans that always cater for changes.

I believe if we make mid- to long-term plans with the market and the competitiveness in mind and follow through with detailed short term plans one by one, we will be able to achieve solid results with stability.

In this regard, CMAK has been work actively, focusing on expanding the market and we will continue to do so. As for the competitiveness, we believ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our member companies to cultivate their own competitiveness. This policy may differ from the associations in Europe and the US but I believe it's because of difference in the nature of their members.

In another aspect, the domestic market these days is quite chaotic. Many areas, such as institutions, routine functions, business areas and their functions, are fragmented which often confuse the people working in the industry and impedes their progress due to mutual distrust

At such times, the government should always listen to the many voices of the market and prepare necessary policies and systems, and our industry should not merely follow blindly but judge its position accurately so that the management of our business will not be disrupted.

In the year of the clever and witty rat, we wish you all the wisdom and hope that this year will be a better year for all the CM professionals.